

# 독일 표현주의 영화에서의 조형미 연구

G2010508 국민대학교 테크노전문디자인대학원 브랜드미디어랩 시각디자인 전공 문창현

# 연구 목적 및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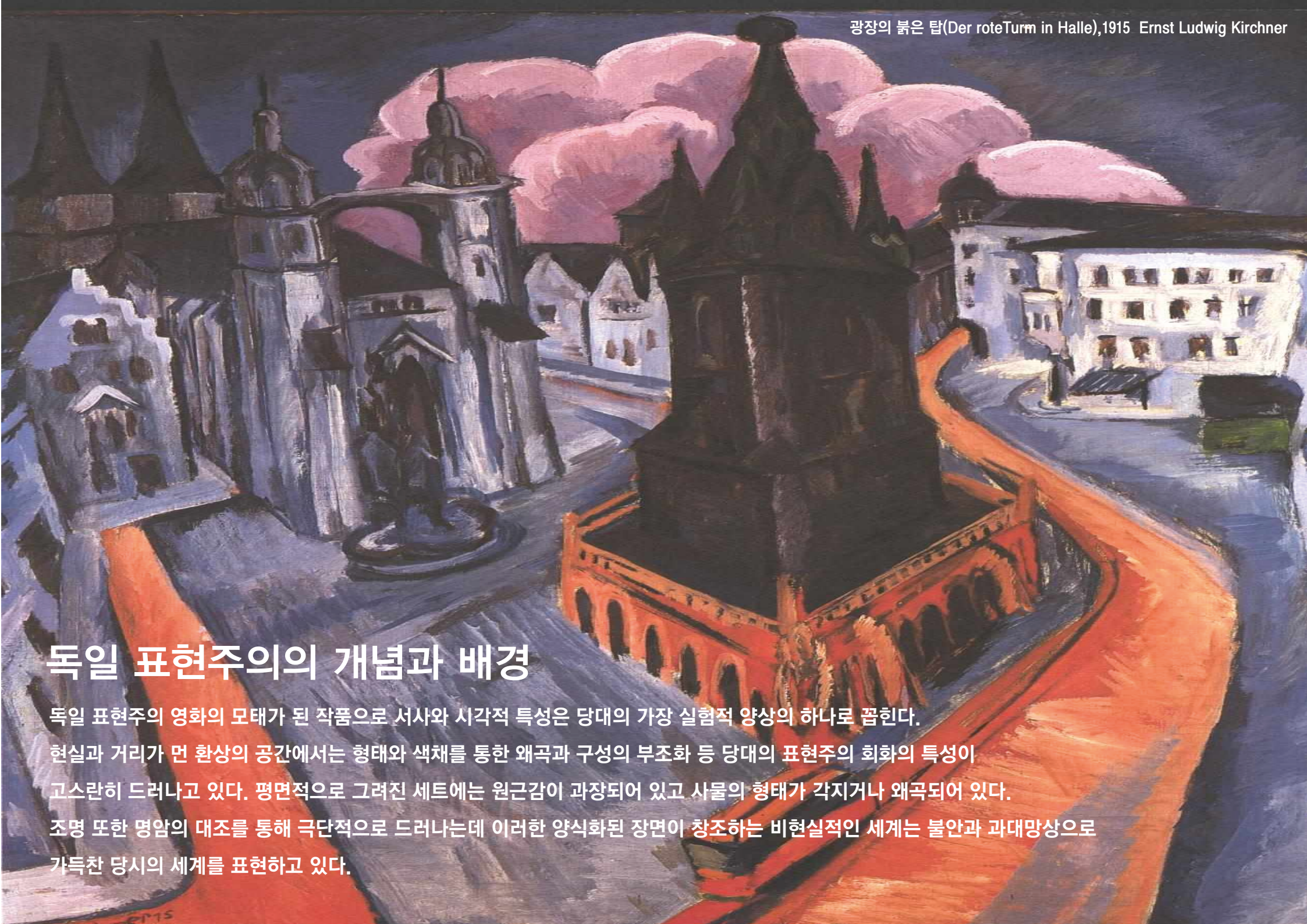
미술사에서의 하나의 이즘은 그 시대를 반영한다. 특히 1920년대 독일 회화에서 시작된 표현주의 미술은 아방가르드한 경향과 더불어 독일 표현주의 영화의 핵심적인 사조를 이루었다. 특히 로베르트 비네 감독의 <칼리갈리 박사의 밀실(1919)>과 프리츠 랑 감독의 <메트로폴리스(Metropolis, 1927)>와 같은 표현주의 영화는 실험적인 여러 시도들과 함께 추상적인 형태의 회화와 같은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다. 특히 독일 표현주의 영화에서의 공간은 공간 자체의 특성이나 의미보다 시각을 구성하는 한 가지 요소의 의미로서 작용한다. 비사실적이고 비자연적인 세계의 극적인 시각적 묘사를 위해 치밀한 건축적인 세트 디자인과 카메라 앵글의 조작, 빛의 특수효과를 통해 공간의 왜곡된 원근감, 기하학적인 구성, 회화적 구도 등을 창조하는데 역점을 둔다. 특히 건축 디자이너 헤르만 바름(Herman Warm)과 발터 뢰리히(Walter Rohrig)에 의해 디자인된 표현주의 건축은 불규칙하고 왜곡된 형상들의 세트에서 볼 수 있듯 수직과 수평선을 약화시키고 예각이나 준각의 사선과 대각선을 강조하는 한편 소실점을 왜곡시켜 공간의 긴장과 변형,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표현주의 영화에서의 조형미를 살펴보고 독일 표현주의 건축의 작품들과 영화 속 요소들을 비교하여 분석한다. 이를 통해 자유분방한 조형성이나 감정표현의 지나친 분출이 표현되어 있는지의 여부, 강렬할 정도의 개성의 표출과 정신의 표현을 인식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회화에서처럼 건축이 표현주의로서의 기능을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지 대표적인 표현주의 영화인 <칼리갈리 박사의 밀실>과 <메트로폴리스> 영화의 세트 구성 및 건축 조형미에 대해 비교하여 분석해본다.



## 표현주의 건축의 정의

대상이 되는 세계를 변형시키는 표현주의 회화나 조각처럼, 건축가가 건축을 창조할 때 전통, 용도, 구조, 재료, 기능을 무분별하게 과잉 표현하거나 자기의 표현욕에 굴복하는 것을 대상세계의 변형으로 간주하고 이를 "표현주의 건축" 이라고 부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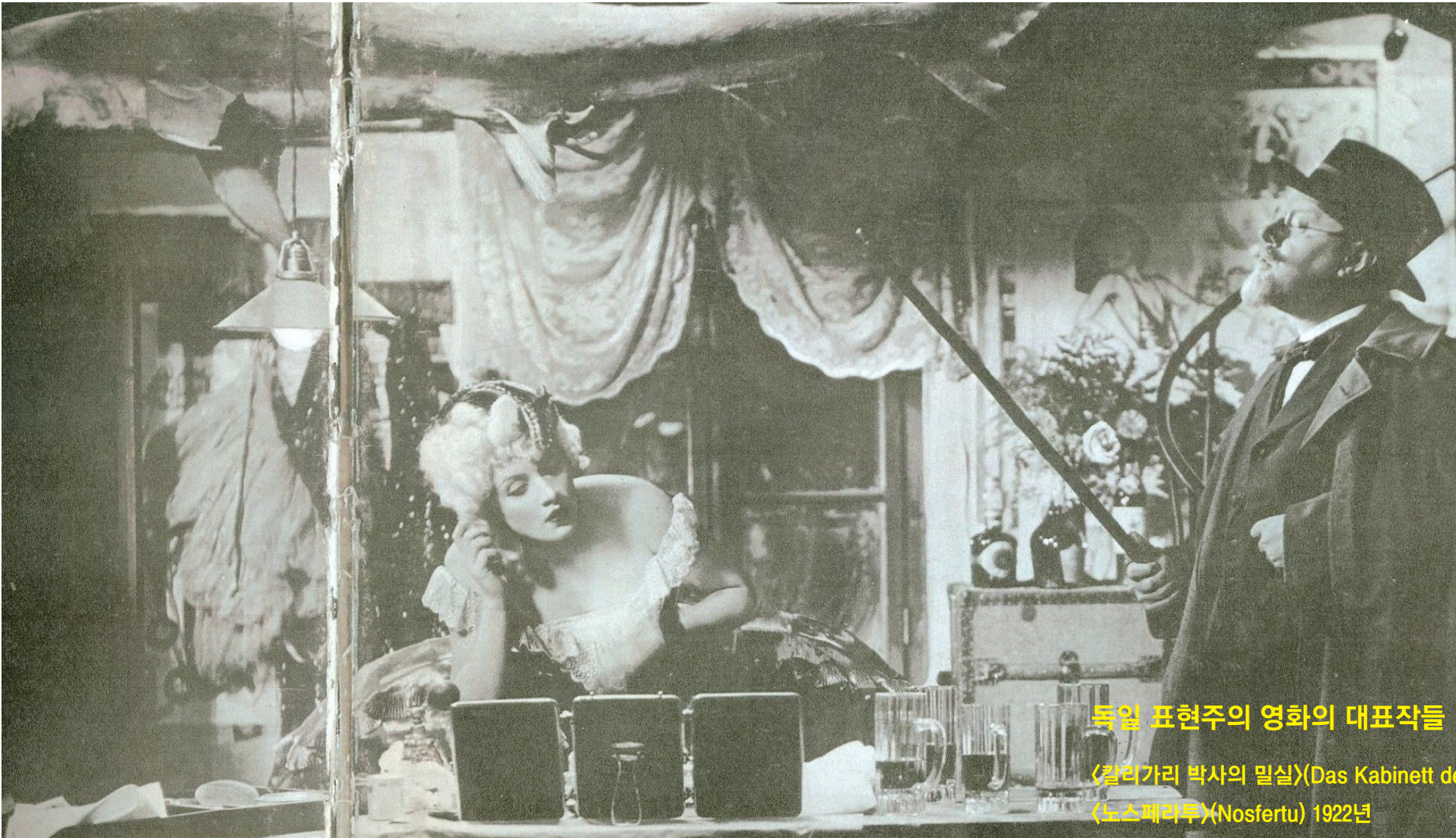


## 독일 표현주의의 개념과 배경

독일 표현주의 영화의 모태가 된 작품으로 서사와 시각적 특성은 당대의 가장 실험적 양상의 하나로 꼽힌다.

현실과 거리가 먼 환상의 공간에서는 형태와 색채를 통한 왜곡과 구성의 부조화 등 당대의 표현주의 회화의 특성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평면적으로 그려진 세트에는 원근감이 과장되어 있고 사물의 형태가 각지거나 왜곡되어 있다.

조명 또한 명암의 대조를 통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데 이러한 양식화된 장면이 창조하는 비현실적인 세계는 불안과 과대망상으로 가득찬 당시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 독일 표현주의 영화

독일 표현주의 영화는 20세기 초 독일을 중심으로 작가의 내면적이고 주관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인간의 역동적인 힘을 전달하려 했던 표현주의 예술운동에서 싹튼 것으로 미장센과 표현양식에 있어서 표현주의 미술과 연극의 영향을 크게 받아 카메라 기법, 조명, 세트 디자인, 연기, 시나리오 구성 등에 많은 혁신을 가져왔다.

### 독일 표현주의 영화의 대표작들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Das Kabinett des Dr. Caligali) 1919년

〈노스페라투〉(Nosfertu) 1922년

〈도박사 마부제 박사〉(Dr. Mabuse der Spieler) 1922년

〈마지막 웃음〉(Der Letzte Mann) 1924년

〈니벨룽겐의 노래〉(Die Nibelungen) 1924년

〈푸른 천사〉(The Blue Angel) 1930년

〈M〉 1931년

〈버라이어티〉(Variety) 1925년

〈메트로폴리스〉(Metropolis) 1926년

〈주홍의 거리〉(Scalet) 1945년

## 영화〈칼리가리 박사의 밀실〉

독일 표현주의 영화의 모태가 된 작품으로 서사와 시각적 특성은 당대의 가장 실험적 양상의 하나로 꼽힌다.

현실과 거리가 먼 환상의 공간에서는 형태와 색채를 통한 왜곡과 구성의 부조화 등 당대의 표현주의 회화의 특성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평면적으로 그려진 세트에는 원근감이 과장되어 있고 사물의 형태가 각지거나 왜곡되어 있다.

조명 또한 명암의 대조를 통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데 이러한 양식화된 장면이 창조하는 비현실적인 세계는 불안과 과대망상으로 가득찬 당시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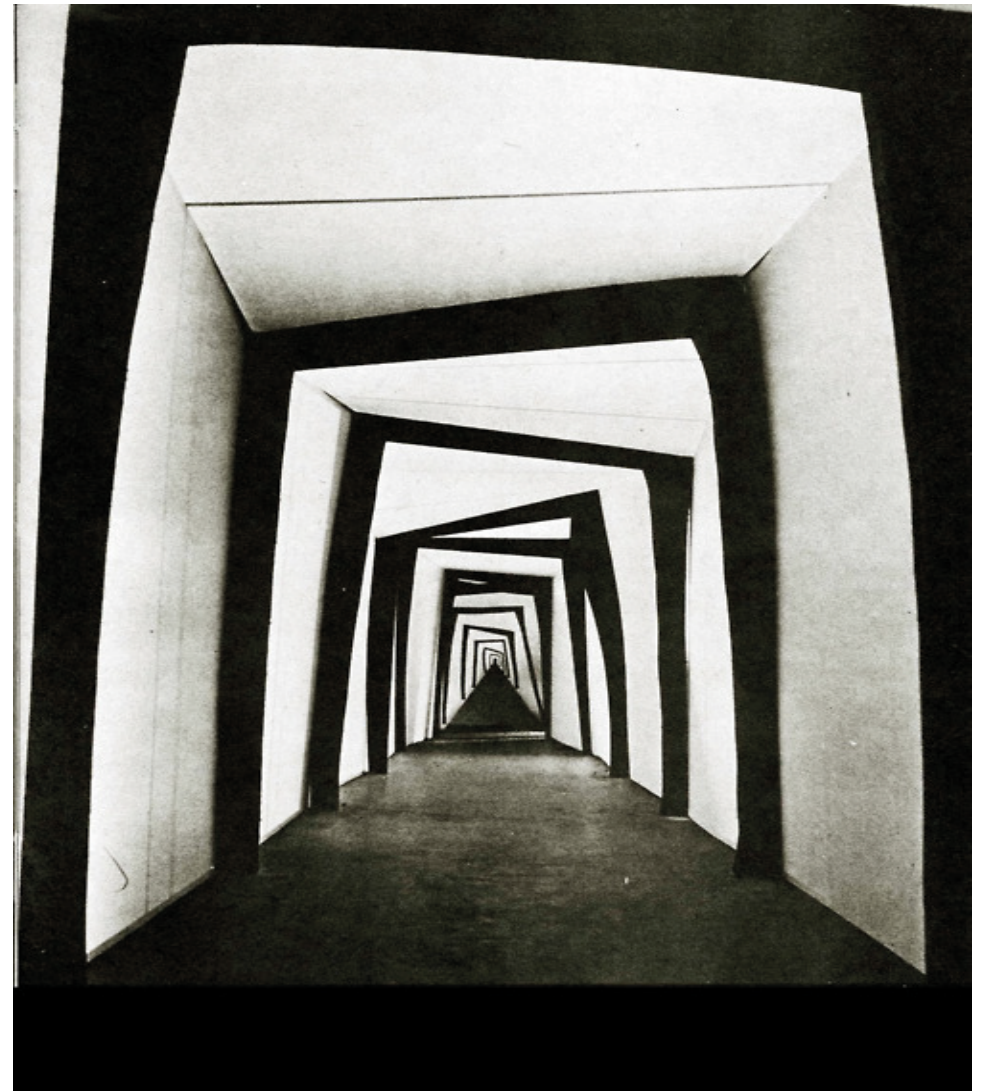




영화<칼리갈리 박사의 밀실>의 장가



영화<칼리갈리 박사의 밀실>의 세트 구조 1



영화<칼리갈리 박사의 밀실>의 세트 구조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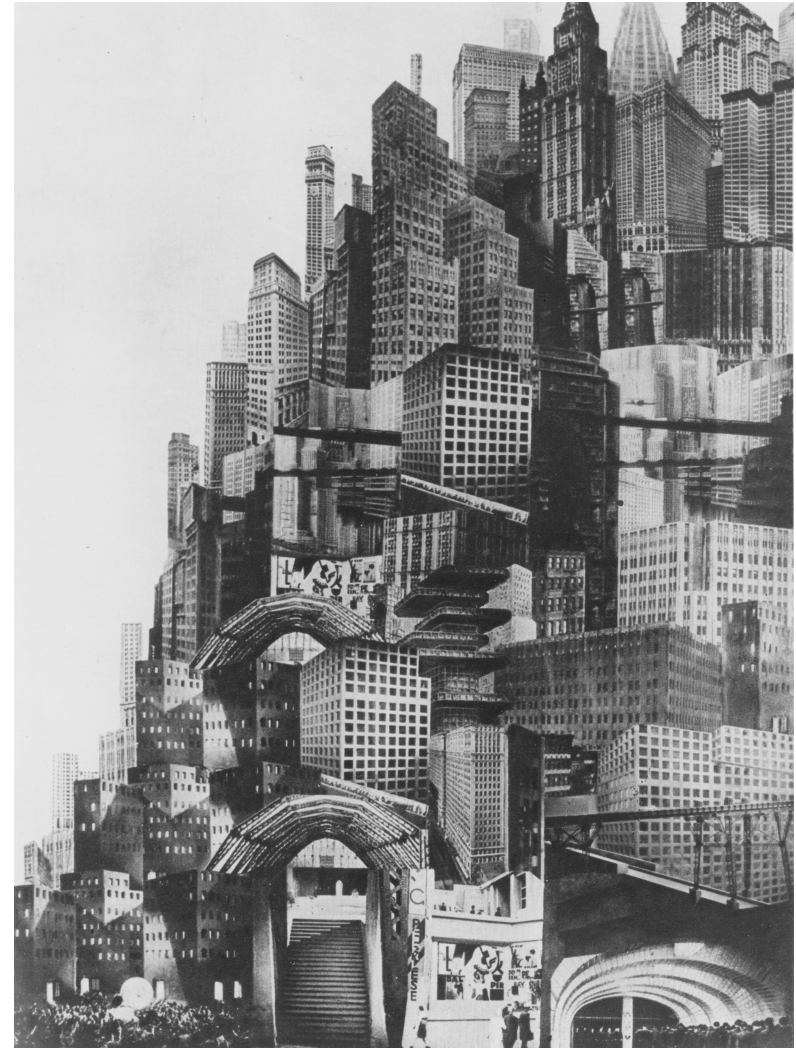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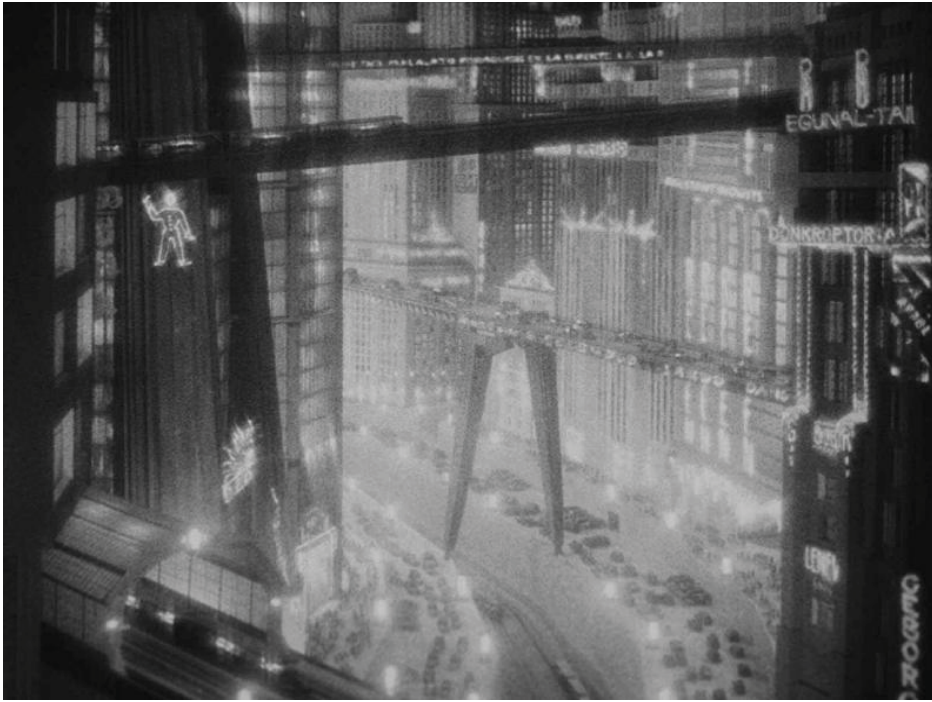
## 영화〈메트로폴리스(Metropolis)〉

총 81개 신으로 구성된 〈메트로폴리스〉는 제목이 암시해주듯 기계문명에 대한 불안으로 얼룩진 디스토피아를 상징적으로 그려낸다. 특히 시각적 요소가 두드러지는데, 도입부의 고층빌딩, 거리장면, 공중의 다리들이 극단적인 조명과 세팅으로 암울한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다. 풍요로운 지상세계와 비참한 지하세계가 극명하게 대조되고, 마리아를 복제한 로봇 설정은 인류문명이 ‘성장의 한계’에 다다랐음을 응변한다. 당시 혼란한 독일을 재건하는 방법으로 나치즘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넌지시 암시하는 영화는 유대인에 대한 비난도 서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런 내용과 별개로 영화의 독특한 표현양식은 후에 할리우드영화의 SF장르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영화<메트로폴리스>에서의 한 장면





영화<메트로폴리스>에서의 세트구조 1



영화<메트로폴리스>에서의 세트구조 2

# 독일 표현주의 건축양식의 특징

20세기초 1차세계대전 이후 독일을 중심으로 기이하고 극적인 표현을 갖춘 건축양식으로 추상적이며 형태 위주의 건축을 의미, 종종 인간의 정서적이고 윤리적인 면을 강조하였다. 풍자적이고 염세적인 표현으로 인간의 번민과 공포를 전달하며, 과거에는 자주 사용되지 않았던 자유로운 곡선, 부등변 삼각형과 사각형, 반원과 같은 형태를 사용하여 불안정하고 동적인 느낌을 강조하는게 특징이다. 특히 전쟁으로 인해 혼란스럽고 불안한 독일의 사회적 현실에 대항하여 새로운 사회를 동경하는 독일인들의 움직임에 의해 상당한 인기를 끌었지만 실용성을 무시할 수 없는 건축의 특성 때문에 다른 예술 분야에 비해 현저한 발전을 거두지는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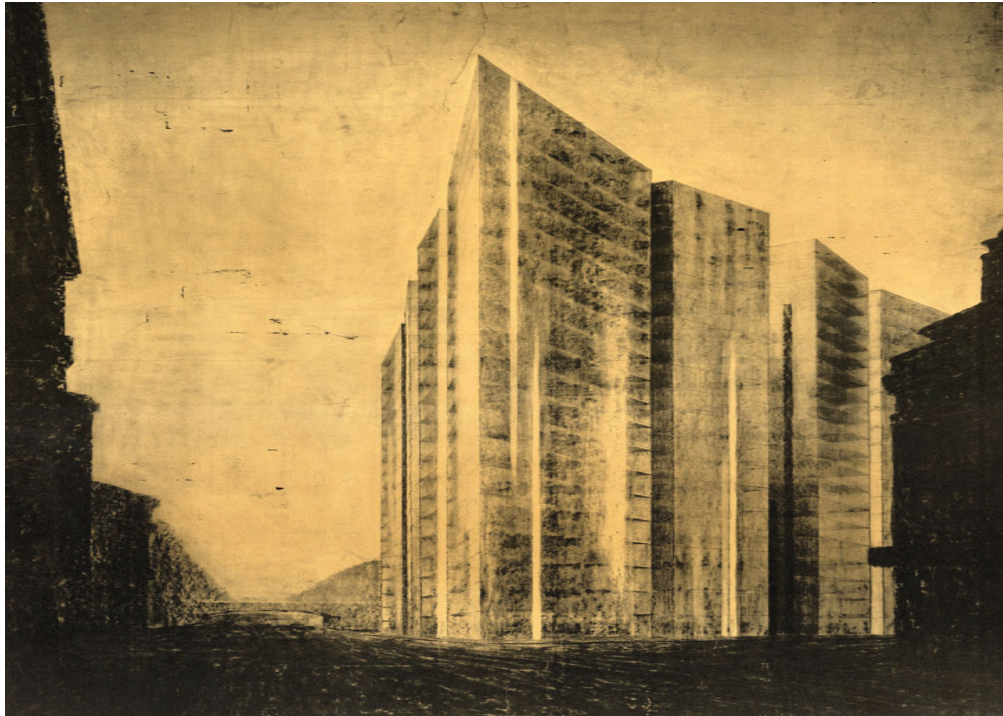
Einstein Tower, 1921 Erich Mendelsohn



Brno Taut / 유리의 집 Glass Pavilion,  
Deutscher Werkbund, 1914



영화<메트로폴리스>에서의 한 장면



L. Mies van der Rohe /프리드리히가 사무소 계획안  
Friedrich strasse office project, 1919



영화<칼리갈리 박사의 밀실>중에서 한 장면

## 맺음말

표현주의 건축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피폐한 경제상황과 맞물려 이상적인 미래건축을 그려나가는 와중에 탄생한 과도기적 현상이다. 근대건축의 주축으로써 큰 가능성을 지녔었지만, 표현주의는 기능적 근대건축을 형성하는 하나의 부분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기능주의와는 분리된 별개의 현상으로 규정되어 왔다. 표현주의 건축은 내재된 기능주의의 가능성을 평가하기보다는 여러 작가들에게서 나타나는 동질적인 속성만을 강조함으로써 감정과 직관의 산물로 규정되어 왔다. 표현주의라는 단어의 모호함이 시사하듯 기능적인 건축의 맥락에서 표현주의 건축의 가치와 의미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영화에서든 건축이든 간에 표현주의는 정서, 감정, 또는 감각에 의해서 생겨난 어떠한 내적 억압이나 내면적 필요성을 예술 작품이라는 배출구를 통하여 외부로 표출시키는 것으로서 강렬함, 개성, 선, 형태 등을 의미를 지닌 모든 가능한 암시로 곡해하고 과장하고 뒤틀리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예술가 개개인은 이면에 존재하는 외적 요소의 자극에 따라 심리적 불안, 혼돈, 혼란, 불확실성, 그리고 결과적인 인간성의 각하와 상실 등을 인식하게 될때 이에 반발하고 현실 도피적이거나 자기 도취적인 행위나 격렬한 행위를 추구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예술과 건축에 나타난 것이 표현주의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건축과 회화는 밀접한 관계를 띄고 특히 사회적인 시대상을 반영한 영화에서 그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남을 알 수 있다.